

아원일도만히 잇슬터이라

박찰봉은 어디든지 인심도엇고 사면이 다 조도록 하자는 마음으로 아모조록 소문업서 일쥬션을 하자는 작정이라 한성병원에서 나서서 계동으로 가는 동안에 그 생각만하며 자기집으로 드러가는데 강동지가 더문밖에 혼자나섰다가 박찰봉을 보고 반겨서 하는 말이

나리는 혼조당기며 이를 쓰시구려

그러하나 너쌀은엇덧케 되었슴잇가

(박찰봉)이쓴다할거슨 무엇잇나

자네싸남은 한성병원에 가서잇는데 아모랄업는모양이니 녀녀말고 보고심거던 가서보고오게

(강동지)아무랄업섯것갓ㅎ면 가서볼것도업습니다

강동지는 그쌀을가서보고심흐나 그쌀이 조슈ㅎ려는 마음이다 강동지를 원망ㅎ는마음에서 싱긴줄을아는코로 춘천집이 꽤히안심되기전에는 가서보지아니할자정이라 박찰봉이 그눈치를알고

(박)그렇치 아무랄업는디 가볼것 무엇잇나 나가엇더케 쥬션ㅎ던지 짐구치를 속히홀터이니 자네싸남은 이집으로 다시올것업서 몇칠간 병원에잇다가 바로 집을 들게홀거시니 그리알고잇게

ㅎ면서 열흘도라다보니 김승지집중 점순이가 와서 업헤섯는지라

박찰봉이 ㅎ던말을 썩긋치고 강동지를다리고 사랑방으로 드러가는데 점순이가 안마당으로 드러가니 박찰봉이 그마누라가 점순의게 속을썩히싸 녀녀ㅎ야 점순의 뒤를싸라 드러가며 시럽스말을 시작한다

(박찰봉)너엇지ㅎ야 여괴왔나나

(점순)뒤에는 못올데이오닛가

(박)너 언제너집에 와서보았나나

(점)전에는 못왔슴이다마는 이제는 조쥬조쥬 오깃습니다

(박)오냐 괴혹ㅎ다 이담에는나제오지말고 밤에오너라 기다리고잇스마

(점)에그 망측ㅎ여라 누가나리되우러 음닛가 마々님되우러오지오

(박)나는 마々님커냥 별상남도업다 이렛케얼근놈의게 또마々님이니 별상님이니 그런거시 잇셔々 엇지ㅎ게

(점)누가나리되 마々님되우러 왔슴닛가 우리되 마々님 되우러왔지

(박)이이 너의되령감게서 첩두섯단 쇼문이잇스니 참말이나

(점)령감마님 심부름ㅎ러온 점순이는 병신으로 아르시네

어셔마々님뵈고 가깃습니다 어는방에게심닛가

박찰봉의 부인은 눈치썩터이라 그남편의말하는 눈치를보고 점순이를 터ㅎ야

숨씨있게 성시침이를 찌하니 여우갓흔점순이논 집구경흐다흐며 넘치업시 이방
저방을드려다 보다가 주인마님의에 녀편네라고논 아모도업논게슬보고 흘일업
시도라가더라

박찰봉이 그날로각처 집주름을불녀서 엇더케집을급히 구하얏던지 불과사오일
이못되야 집을구하얏더라

육심덩어리로성긴 강동지는 경괴성도리갓흔 박찰봉의쇄임에 넘어서 그육심을
조공도 못취우고

겨우 서울오든부비만 어더가지고 춘천으로 내려갓스나 춘천집이 김승지와 의
죇케손다 하는소문만 드를지경이면 그늘로다시 서울와서 김승지의게 드을디일
작정인디 강동지가 춘천으로 내려가면서 그설더러 잔다는말도 아니하교 내려
갓더라 춘천집이 그부친이 서울잇슬떡는 야속하니마니 하얏더니 그부친이 썩
낫다하는 말을듯고 마음이더욱 손란하교 썩자리만 사납더라

第九章

남티문밭도동 남관왕묘 동편에강소사가라 문피부튼집이잇는디 안방에는 절문
녀편네 하나뿐이오 흥낭방에는 더부사리녀외뿐이라 아모도오는사름도업시 쓸
쓸흔 괴운만잇더라

동지설초하로날 강소사가 해손을흔후에 한식구가 늘더니 어린아히우는 소리에

사름이 사는듯심흐더라

산모가 아들을낫코 깃버하나 그깃분마음 날떡마다 아히아바지를 생각흐다

그아히아바지가 죽고업느냐 흘지경이면 죽어영리별을 흔것도아니오 천리타향
에 성리별을하얏느냐 흘지경이면 그리흔리별도아니오 지척에잇스면서 그리고
못보논터이라 그러면 그산모가 남편의게 소박을마진사름인가.....

아니 소박덕이도아니라 물갓치김흔정이 서로김히드러서 이몸이죽어 썩드리도
정은천만년이되도록 썩지도안코 변치도아니하듯흔 마음이잇다 그럭케 서로성
각하면서 서로보지못하는 그사름은 누구런가

그동너 사름들은 강소사점으로 알뿐이오 전동김승지의첩 춘천집인줄은 아즉모
르더라

춘천집이 그집든후에 김승지가 청천에구름지나드시 이슬차당겨갓스나 춘천집
마음에는 차라리 춘천잇셔서 그리고 못보던떡만 못하게녀기더라

동지섯달 긴긴밤에 우는아히를 가로안고 져이아니나는 져썩지를물니고 어르고
달너더라

아가아가 우지말고 져먹어라 세월이어셔가고 네가얼는조라 어미손을 찌녀서
네손으로 밥써먹고 네말로거러 당길만하면 나는죽어도 눈을감고 죽기다마는
피쌍어리너를두고 죽으면 네게는 적악이라

이 밤이 이렇게 기나 너즈라 나는 거슬 기다리자 하면 너근심 너고성이 한량이 잇
 깃나냐 져이나 녀 녀 하면 네 주렴이 덜 할 터이나 져 좃차 주져 러우니 이고성을 잇
 지 흥잔말이나
 나는 먹기 시린 미역국 혼밥을 억지로 먹는 거슨 너 비를 쳐우고 너가 살려고 먹는
 거시 아니라 국밥이나 잘 먹으면 져이나 혼을 줄아 랫더니 혼하라는 져은 혼치 못
 하고 혼흔 거슨 눈물뿐이로구나
 아가아가 우지 말고 잠이나 자려 무나
 이리 못 처안고 이 져씩지도 물어 보고 저리 못 처안고 저 져씩지도 물어 본다
 어린 아히는 달낼수록 보치고 우는디 춘천집은 점점 몸이 고단 혼성각이 나더니
 어린 자식도 귀치 아니하고 성가신 마음이 싱기더라
 애그 이 의물의 것
 우이 싱겨나셔 너고성을 이렇게 시기나나
 안아도 울고 뉘여도 울고 져을 물어 도우니 엇지 할란 말이나
 울거나 말거나 나는 모르 깃다
 흥면서 어린 아히를 아리목요우에 뉘여 노흐니 어린 아히는 자지러지 게우는디 춘
 천집은 그 어린 아히를 다시 아니 볼 것 같치 도라다 보지 아니하고 옷목에 노힌 등잔
 불을 정신 업서 보고안져더라

창밖에 부든 바람이 머리 못쌍창을 후려치면서 문풍지 떠는 소리에 귀가 소요하디
 니 방안에 찬괴운이 도는디 춘천집이 고슬뚝치갓치 응고리고 안져다가 흥는 말이
 애그 이런 방에서 도 겨울에 사람이 사나
 오나 겁나는 것 업다 살년의 팔자가 이러 할 깃나냐
 니가 김승지의 첩되던 날이 죽을 날바다 노흔 거시오
 서울로 오던 날이 죽으러 오던 날이라
 하늘이 정하야 추신 팔조오 귀신이 인도 할 길이라
 하로한 시라도 갈 길아니 가고 이 세상에 잇는 고로 하늘이 미워하고 귀신이 시괴
 하야 죽기 보다 더 혼고성을 지여 주는 거시라
 고성도 진저러가 나거니와 하늘이 명하신 팔조를 어과려 하면 되 깃나냐
 흥면서 우는 아히를 물끄름보다가 가슴이 칼로 어이는 듯하고
 눈물이 비오 듯하디니 어린 아히를 살자 만지며
 아가아가 네어미는 죽으러 잔다 나는 적마누라 투괴에 이지경 되거니와 너의 적
 모가 너 좃차 미워 할 거시야 무엇 잇 깃나냐
 니가 죽고 업스면 너의 아바지가 너를 다려다가 유모두고 기를 거시라
 져 업고 돈 업고 도라 보는 사람 업는 너 손에 잇슬 씨 보다 날 거시다 오나 잘 잇거라
 나는 잔다

춘천집이 모진마음을먹고 전과철도에가서 처여죽을 작정으로 경성창고회사압
해나아가서 전과철도에 가만이 었더라 전차오기만 기다리는데 용산에서
오는큰길로 돌々 굴너오는 박휘소리에 춘천집이 눈을 깜 하고 이를 앙물고 폭
업드렸는데 천등갓흔 소리가 점々 갓가와지더니 무어신지 춘천집몸에 부딪
더라

춘천집치마에 원사름이 발을길고 너머지면서 별안간에 에그머니소리가 나더니
엇더흔 절문너편네를 공중에서 집어더지는데서 길가운데서 쪼러진다
죽으려하던 춘천집은 과히 닷치지도 아니하얏는데 쫓박사름이 들이나 닷쳐더
라

용산서 서울로드러오는 인력거군이 길에서 초롱을 띄우고 쌍감훈밤에 가장발
씨익은체하고 어둔길에서 다름박질하다가 발에무엇인지 툭 걸니면서 인력거군
이머지는 서울에 인력거갓던 너편네가 엇더케 몹시쪼러졌던지 땀뺀을못하고
길에 업드렸더라

춘천집이 죽으려하던마음은어디로가고 인력거에서 쪼러진 너편네의게 불안하
고 가이업는마음이 청겨서 그너편네를 이르기며 위로하나 원리몹시닷천 사름
이라 운신을못하는 모양이러라
인력거군이 툭々떨고 이러나서

절속절속하면서 중얼중얼하는소리는 길사에 드러누엇던 춘천집을 욱하는소리라
춘천집이 썩썩리갓흔 목소리로
인력거군의게 불안하다 말을하는디 그인력거군이 처음에는 길가에누엇던 사름
의게 싸음을하러 티들듯하더니 춘천집의 모양과목소리를듯고 압흔것도 이젓던
지 차々 말이 곱게나오더라

(춘천집) 여보인력거군 인력거라고가시던 아씨는 어디 계신아씨오
(인력거).....

(춘천집) 너집은여기서 지척이니 그아씨를 너집으로 모시고갑시다
용산서 여기까지온 작은너가 후이쥬리다

인력거에서 쪼러지던 너편네가 그석정신이나서 하는말이 나를이르켜서 인력거
우에티여만쥬면 너집까지가갓다하나 인력거군이 발을싸여 거름을거를수가업다
하면서 말이는 아나가려하는고로 그너편네가 춘천집을 쫓라갓더라 춘천집이
그너편네를 다려다가

아리목에누히고 더부사리를 빼여서 불을덥게쪼라 하면서 이를쓰는데 그너편네
가 춘천집이이쓰는 모양을보고 엇지불안하던지 몸을닷쳐서 압흐던싱각도업는
갓갓더라

은양은정에 음징이모히드시 춘천집안방에는 두 서름이갓치 맞났스나 서로제서

름은감추고 말을하지 아니하고 서로남의사정을 알고자하는 눈치더라
그잇흔날식전에 무슨바름이 부러던지 김승지가 즈근돌이를다리고 춘천집을보
러나왔는지

춘천집이 김승지를 못볼려는 눈이빠지도록 기다리더니 김승지드러 오는거슬보
고 성이잔뜩나서고기를 외로두루고 안젓더라

(김승지)이이 춘천집아 우와도라 안젓나나

산후에 별랄이나 업섯나나 밭셔슴칠일이되얏나

에구 슴칠일도 더되얏네 오날이금음날이지

어디 어린아희좀보즈

춘천집은 아모소리도업서 아리목벽을향하고 안젓는지 김승지는 어리광되갓치
흔조영너리만치다가 아리목에 사람이 드러누흔거슬보고 또흔말이

이이 저기드러누흔 사람은누구나

손님오섯나나

네가 못드러올거슬 드러왔나보구나

(춘천집)네 손님오섯소

핑계조흔김에 어셔도로가시오 그것케오시기 어려운길은 차라리오시지 말고
서로잇고 지니는거시 좃켓소

김승지가 춘천집의 마음이좃도록 말을 좀 잘할작정이나 말이얼는 아나나와서
우득허나섯는지 아리목에서 이불조락으로 눈섭밧까지 가리고 이마만 보이듯코
누엇던 너편네가 얼굴을뒤혀놓더니 김승지를 치어다본다

김승지가 언뜻보더니 입을싸버리면서

아! 이것 누구가

침모가 여기를 엇지알고왔나 이것참별일일세그려

(침모)나는 이집이 누집인줄도 모르고왔더니 지금령감을뵈고 령감덕인줄아
랏습니다

(김승지)응! 그럴러이지 너가여기 집장만흔줄을 누가안다구

집안에서도 아모도모르네.....

저 즈근돌이만알지

자넢지라도 누구더러 너가여기 집장만흔얏단말 말게

(침모)그러하시겠습니까

이런말이나서 마남귀에 드러가면 령감은 큰일나실일이올시다

령감께서 벼슬을당기면서 정부를그렇게 두려워하시고 디황제 폐하게 그렇게

조심을하시면.....

말뭇을맞치지 아니하고 김승지의얼굴을 물그름이보는지 춘천집이 휘도라안지며

여보령감 령감을다시 못뵈을줄아랏더니 또뵈옵소구려
오날 참잘나오셨소

오신김에 부탁할일이잇소
오날 령감 드러가실썩에 저 어린아히를 다리고가시오

여괴두엇다가는 오날이던지 다킬이던지 나만업스면.....
할던말똥을 맞치지 못하고 머리를도르켜 어린아히를보면서 구슬같은눈물이 치

마압혜셔러전다
(침모) 령감.....

령감께서 어련이성각하고 깨시깃습닛가마는 엇더케 할실작정 이오닛가
넌가그쳐림말을거슨 아니을시다마는 남의일갓지 안소구려 어제밤일을알고

나오셨는지도
(김승지)우이 어제밤에 무슨일잇섯나

(침모)글세을시다 나도자세이는 모르깃습니다마는 어제밤에 내가용산갓다가
오는길에 인력거를타더니 인력거군이 등불업는 인력거를 썰고 어둔밤에 다

름락질을하다가 무엇에걸여 너머지는서슬에 내가인력거우에서 낙상하야 이
모냥이오

(김승지)응 낙상을하야 과히닷치지나 아니하얏나

(침모)넌가 낙상흔거시 썸썸할일로 말습흔거시아니오 엇더할사람이 허리
를전괴철도에 걸치고업드려서 전차오기를 기다리던모냥이니 그럿게볼상흔
사람이잇는줄을 아르시오

(김승지)응 거거시 누구란말인가
침모는다시 말이업시잇고

춘천집은 모괴갓치운다
침모가 춘천집우는거슬보더니 소리업시 짜라운다

김승지가 춘천집우름소리를 듯다가 가슴이썩썩지근하야지면서 눈물이써러전다
잠드러든 철업논어린아히가 엇지하야 깨엇든지 아히씨지운다

강쇼사집 안방에는 아히어른업시 눈물로 서로 티하얏는티 의논은똥치아니나고
히논나이가 되얏더라

第十一章

장안한복판 종노종각에서 오정열두시치는소리가 짹々나면서 장안성중에 쇠뿔
이나잇고 자명종기나 거러노흔 큼죽흔집에 드러잇는사람들은 오정소리를듯고
일시에 눈이즈명중으로잔다

이거시 원일인구 벌셔오정이 되얏는티 령감이 우이잇셔까지 아니오시누
하면서 점습이를 부르는사람은 전동김승지집부인이라

이이점순아 령감게서 즈근돌이를 다리고 어티로가신지 아나냐
(점순)원네가 알수잇습닛가

(부인)그것참 이상흔일이로구나 오늘석전 일곱시사십분에 떠나는괴차에 림
공사가 일본잔다고 령감게서 작별인사인지 무엇인지하러 가신다더니 벌써열
두시가 되도록 아니오시니 나를죄기고 다른티로 가셨나보다 이이점순아 네
가침모의집에 갓슬씨에 정녕출천집이업더냐

그년이 계동으로 갔다는데 침모집에도업고 또박참봉집에도 업스면 어티로갓
단말이나 요년 너도 아마 나를죄기지.....

(점순)에그 별말습을 다 하십니다 아모러기로 원네가마님을 죄기깃습닛
가

(부인)오! 그러치네가만일 나를죄것다가는 너를쳐죽여 업셀터이다

너가 다른년을 심부름시키지 아니하고 너를시키거든 밋고시키는데 너쫓차
가짓말을하면 쓰깃나냐

(점순)마님께 말씀이지 즈근돌이는 마마님 게신곳을 아노모양갓하냐 말을아
니하냐 원네도 그뒤만삼히고 잇습니다

(부인)이이 그것단말이나
그러면네가엇더케하던지 즈근돌의 속만썩바셔 너게말만하여라

그것만 아라쥬면 네치마도하여쥬고 저구리도하여쥬마
치마 저구리썩이깃나냐 너옷가지들 더라도 너를쥬마

요악흔 점순이가 옷하여준다하는말에 욕심이불갓치나셔 가짓말일지라도 안다
하고십흐나 더문이업는가짓말 할수논업고 일심정녀이 즈근돌의 속썩을경영썩
이라

점순이가 마님을부르면서 무슨말을 하려하는데 안중문 안에서 김승지의 기침소
리가나더니

안방에로 드러오는데 점순이는 하던말을 썩긋치더니 방문밖으로 나아간다 부
인이 김승지의 얼골을엿지몹시 쳐다보던지 김승지가제플에 당황흔괴석이잇셔
스 누가못지도 아니하는말을 회설수설한다

(김승지)오날은 불의출렁이야 공연이남의게설여셔 이리저리 한참을쏘뎃거든
.....

여럿이 모힌곳에가면 그런일 성가시여.....

여보마누라 나는잇셔사지 아침밥도아니먹었소

이이 점순아 네 어티가지말고 너밥상 이리가저오너라
어! 처위.....

이방썩々흔가

항더니역개를 웃씩々々 하면서 진저리를치고 아리목으로 드려오는데 썩 몹시치운모양이라

(부인) 우익그릇째 치우시단말이오
그런고로 첩이안히만 못하단는 거시지오
춘천집방에 가서 몸을얼려가지고 오시더니 니방에와서 몸을녹이시느구려
어서 이 아리목으로 드려오시오

하면서 성도아니니고 괴석이천연흔저라

김승지가 그첩의집에간것을 그부인이 소문을듯고 그것게말하는줄로알고 역저
모의항다가 말각된놈의 마음과갓치 삼짱놀남던차에 그부인이 천연이말하는거
슬듯고 일변안심도되고 의심도는다

빙긋々々우스면서 마누라의얼굴을 물스름보며 무슨말이 나을뜻々々々하고 아
나나온다

(부인) 여보령감 니가령감쇼원을 푸러드릴터이니 니말되로항시깃소

(김승지) 응 무슨말

니가무어슬 마누라말되로 아니항는거시잇소

(부인) 그러항실터이면 춘천집을불너 드려다가 저간년방에줍시다

두집뵈치를항면 돈만더들고 령감이당기시기도 비편항니 오늘부터 한집에잇

게홉시다 괴왕 둔 첩을 엇지홀수잇쇼

제가 마다가 가면 붓들거슨 업지마는 아니가고잇스면 억지로 내쫓칠수야잇쇼
그러나 춘천집을 불너오더리도 령감게서 너무혹항셔々 몸을과히 상항시면썩
흔일이야.....

혈마 령감도싱각이 잇스실터이지.....

그러실리는 업깃지오.....

김승지가 슬깃홀마음에 가장말솜씨나 잇는드시도로혀 그부인의속을뻘으려든다

(김승지) 좀어려울걸.....

한집안에서 견딜사름이 짜루잇지

마누라성품에 될수가잇나

(인부) 춘천집이 춘천셔 올너오던늘 니가야단을 좀 쳤더니 그거슬보고 항시는
말솜인가보구려

첩을두실터이거든 날더라둔다는 말솜을놓고 두섯스면 내가무슨말을 할 리가
잇쇼

남조가 첩두기가 여스이지

령감은 내게의논도옵시 첩을두시고 춘천집을불너올셔도 날더러그런말이나항
섯소 부지불각에 그런일을보면 누가좃타할 사름이잇깃소

(김승지) 그거슨 그러하여 보모...
그거슨 너가 잘못하였지...
마누라가 열이 늘 만흔걸...
여보 지나 잔일이야 말하여 쓸데있소

압일이니 의논옵서다

춘천집을 불너 드리면 한집안에서 아모소리 업시 살깃소

부인이 성시침이 씨고 말을하다가 원리 화소에 불이러나듯하는 성품이라 과가 벗석나서 낮치벌개지며 왜가리 소리 갓흔 목소리를 벌억지르면서

여보 다시 첩두면 무어시라고 밍서하셨소

남 붓그럽지 아니하시오

이이 점순아 저 건넌방 처우고 불덥게 때여라

오늘부터 마마님 오신단다

에그 망칙하여라 계집이다 무엇인고 계집을 감추어 두고 밍서를 그러케하여

.....

병문에잇는 막버리군도 할만흔 밍서를하지 영절스럽게 그럴밍서를지여...
내가 잠조코잇스니 아모것도 모르는줄알고...
말셔부터 다 알고잇셔

조근돌이란놈 그놈 쳐죽여 노홀놈

그놈이 너 눈압해 다시 보헛다가는

하면서 분명흔 토죄도 아니하고 조근돌이를 버르니 김승지가 엇지 당황하던지 그 부인을 치어다 보며

아니야

무어슬

남의 말을 조세듯지도 아니하고 그리히셔쓰나

아! 글세네 말 좀 자세듯고 말을하여야지

춘천집을 누가 참 불너온다나 또 춘천집이 어디가서잇는지 너가 알기나 아나
하면서 어렸던몸에 섬이나 도록 이를쓰고 손이말이되도록 빌더라

第 十 二 章

점순이가 흥남으로 나가더니 방문을 펼쳐 열며

여보 슈돌아바지 이를 엇지한단 말이오 큰일났소구려 마님께셔 슈돌아바지
를 죽일놈 살일놈하며 버르시니 원일이오

(자근돌) 침다 문닫쳐라 드러오려거든 드러오고 나가려거든 나아가지 우이문

은열고셔 말말하여

(점순) 에그 남의 말은 아니듯고 썩소리만하네

(즈근돌) 듯기시려 말은무슨말.....
 (점순) 나는 모르깃소 마님께서는 술돌아바지를 쳐죽인다 너쫓는다 하시는데
 엇지하면 저렇게 겁이없누
 (즈근돌) 령감은 마님을 겁을너서 별々떠르셔도 즈근돌이는 겁커냥 눈도삼져
 어리지 아니한다

누가 김승지뒤 종노릇아니하면 죽는다냐

점순이가문을 툭닫고 아리목으로 더러오더니 아리목불목에 잠드러누흔 어린즈
 식포디기밋호로 두손을 쭉 집어넋터니 싱긋々우스면서

여보々々 술돌아바지

(즈근돌) 보기실타 여우갓치 요거시 다 무어시아

(점순) 남더러 공연이 육만하네

(즈근돌) 육이 죽목보다 낫지아니하냐

(점순) 열핏하면 죽목만내세네 아모죄도업는사름을 철마쳐죽일나구

(즈근돌) 철마가 다 무어시아 너도마님갓치 강씩만하여보아라 한죽목에 쳐죽
 일터이다

(점순) 강씩는 엇더흔 비러먹을년이 강씩를하고잇서

나는술돌아바지가 다른게집의게 밋쳐남뛰는거슬보면 나는다른셔방어더가지

밤낮게결々々하고 잇슬 망흔년잇나
 (즈근돌) 아이그것참 속시연흔소리를 하는구나
 하느님이사름 내실씩에 사름은 다 맛찬가지 남녀가 다를거시 무엇잇단말
 이나

내가형실이 그러면 내가너를버리고

내가두게집을 두거든 네가나를버리는일이 을흔일이다

두셔방이니 두게집이니 그짜지소리도 흘것업서

두내외가의만조흐면 평형을갓치 살녀니와 의가좃치못하면 하로밤비 갈나서
 눈거시 제일편흔일이라

게집들 두는농도 망흔놈이오 시얏보고 강씩하고 잇는년도망흔년이라

요석 개화세상인줄 몰났나냐

(점순) 여보 요란스럽소 흘부루하지마오

그러나 춘천마々댄이 어디오 나도가셔구경좀하깃소

하더니 눈우숨치며 즈근돌의 여개밋호로 머리를밧삭 디민다

게집에게 속지아니한다고 큰소리를 탕탕하던 즈근돌이가 점순의게 속을썰혀서
 점순보통이를 송도리지 너여 노앗더라

점순이가 경사나는드시 안악으로 살작드러가다가 안마루에 김승지의신이 노흔

거슬보고 아니드러가고 도로돌아나아간다 맛찰티문만에 박참봉이드러오다가
 점순이를보고 박참봉은 점순이가 춘천집의 뒤를맡부러와셔 이방문 여러보고
 저방문 여러보고 요리개웃 조리개웃 흥던고모양이 생각이는다
 점순이는 저근돌의게 당장드른말이 잇는고로 박참봉의쥬션으로 춘천집이남디
 문밖에 집을사셔 드릿단말을 낫낫치 알앗는지라
 박참봉도 점순이를 유심이보고 점순이도 박참봉을 유심이본다
 (박참봉)령감게시나
 흥면서 사랑으로 드러가는데 점순이가 안으로돌쳐 드러가더니 안방미다지밖에
 서々

(점순)사랑에 손님오셨습니다
 (김승지)오나 게잇거라

흥더니 나아갈싱각도 아니흥니
 (점순)계동박참봉나리 오셨습니다

김승지가 박참봉왔다는 말을듯더니 벌떡이러나 나아가더라 점순이가 안방으로
 투 뒤여드러오더니 부인의압호로 살작 와안지며

(점순)마님.....
 마님께셔 암만 그리흥시면 쓸세잇슴닛가

사름마다 마님만 쇠기러드니 아무리흥면 아니속을수 잇슴닛가
 (부인)무어슬.....

점순아 점순아 무어슬그리흥나나
 어서 말좀흥여라

춘천집이 어디잇는지 아랏나나
 (점순)계동박참봉나리가 남디문밖에 짐사쥬엇담니다 오날도 령감게셔 마마
 덕에가섯는디 침모도 거괴 잇담니다

부인이 눈이뚱구리지더니 점순의압호로 벗섯벗섯 다가안지면서

(부인)이이니말이 마졌구나 저거슬 엇지흔단말이나
 령감게셔침모와 춘천집을 한집에두고 호강을흥신단말이나

에그 엇더케흥면 그년들을 쳐죽여셔 한구덩이에 집어널구.....
 점순이가 그말을듯고 상긋우스면서

마님.....
 부르더니 다시 말이업서 또눈우숨을천다
 (부인)응 무어슬 그러나나 무슨홀말이잇나나

(점순)말삼흥면 쓸디잇슴닛가 마님께셔는 마음이착흥서기만흥섯지 모진마음
 이야 어디조공언들 잇슴닛가

(부인) 에그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말썬이지 실상먹은 마음은 업는사름이다
 그러나 그소리는 다그만두고 약가하던말이나하자
 글세 저년들을 엿지하면 좃탄말이나

(점순) 무엇을 그것게걱정 하실일이잇습닛가

(부인) 에그 요방정마진년 그거시 다 무슨소리냐

그리 그년들이 내게걱정이 되지아니하단말이나

요년 너도그싸위 소리를하러거든 내눈압헤 보이지마러라

(점순) 에그 마담게서는 말삼을엇더케 드르시고 하시느말삼인지 모르깃네
 현네가설마 마담게 히로온말삼이야 하깃습닛가

(부인) 오냐 네가형설수설 하느소리업시 춘천집과침모를
 엿더케 조쳐할말만

하러무나 내즈세하듯지 아니홀리가 잇깃나냐

그리 무슨말이나 어서좀하여라

점순이가 가장 제가진체하고 말을얼는호지 아니하더니

본리잘웃는 눈우숨을 한번다시우스면셔

(점순) 마담

마담게서 원네말을 드르시깃습닛가

(부인) 요년아 무슨말이던지 얼는하러무나 내게유익흔 말이면 무슨말을 아니
 듯깃나냐

(점순) 마담게서 저릿케 심녀하실것 무엇잇습닛가

마담님이던지 침모일년지 다죽고업스면 마담게서 걱정이업스실러이지오

(부인) 이이 그들 다이를말이나 그러나 그년들이 시과랏케 절문년들인티 죽
 기는언제 죽는단말이나

그년들이 도로혀 너약과를먹으러 드는년들이다

약과썩이라더냐 너눈만새지면 그년들이 이집기동썩리를 썩노홀년들이다

(점순) 그것기로 침을두면 짐이 망하나니 흥하나니 하느거시 다 그싸닭이야
 나오닛가

(부인) 아무렴

그릿기를 다 이르깃나냐

화가나논일이 잇슬썩도 네말을드르면 속이좀서연하다

그러나 저년들을 엿지하면 좃탄말이나

지금으로 너가교군을타고 그년의집에가서 방땡이로 춘천집과 침모년의 티강
 이를 새드러듯코심하다

박찰봉인가 무엇인가 그 망흔놈은 우익남의 집에 당기면서 남의 집을 망흔야노
흐려 혼다더냐

그 망흔놈 다시 너집에 오지 말나 하여라
이 이 점순아.....

항면서 항던 말을 다시 하고 못던 말을 또 못는디 속에서 열이 길々이 울은마음에
발서 큰 야단이 낫슬러이나 점순의 입에서 부인의 마음에 드는 소리만 나오느코로
그말 드를동안은 피々 하엿거니와 그말만씩 곳칠지경이면 부인의야단이 시작될
모양이라

서창에 지는히가 눈이부시도록 빗추엿는디 창밖게 지나가는 그림자는 나라 드는
저녀사치라 서창을 마주안져 쇠리를 드렸다 노앗다 하며 주둥이를 싹々 버리면서

쌌々
쌌々々

짖거늘 구괴 잘하기로는 장안녀편내 중 제일가는 전동김승지의 부인이 시앗이니
무엇이니 하고 지향을 못하는 중에 저녀사치 소리를 듣고 근심이 벅씩 느렸더라

(부인)에 그 조방정마진 저녀사치는 우익 남의 창밖게 와서 짖누

조년의 저녀사치가 지々면 그혀의 고약흔일이 싱기더라 너가 처음에 시앗보
앗다는 소문을 들던 날도 딱 요만씩에 사치한마리가 조괴안져서 짖더니 춘천

집인가 무어신가

그 못된년이 싱겼지 이 이 점순아 어서 나가서 조 사치 좀 좇차다구

에 그 요년아 무어슬 그리 씹겨 거리고 있나

너는 한번 안젓다가 이러하려면 우익 몸이 그리 묵어우냐 또 조식티엿나냐

에 그 고년 뒤스문으로 나갓스면 쉬올러인디 우익 압문으로 도라나가누

조 사치 작구짖는다 그만 두어라 너가 쫓치마

수어!

소리를 지르면서 서창미다지를 드우여러젓떠리니 사치가 펼쳐나라 공중에 놀히
떠서 남산을 향하고 살갓치 나라가더니 연소정 산빛탈로 내려간다

부인은 사치만 보고 섰다가 사치는 아니 보히는디 부인은 정신 업시 면산을 보고 섰다
안방지계문으로 나아가든 점순이는 안마당 안부엌으로 휘도라서 안뒤겘으로
나가다가 나는 사치 지는 곳을 보더니

(점순)에 그 고사치는 이상도 하지 이딴에를 당겨서 춘천마마님딴에로 가나베

.....

마님 마님 저사치나라 가는 곳이 마마님잇는 도동이올시다

(부인)압다 그년사는 동년 근쳐만 바라보아도 사름이 열이나서 못살겘고나
엇지하면 그동년가 오날밤너로 쌍이 싹 두려빠져서 업서질고

(점순)에그마님께서 허구흔세월에 저렇게 속을씩이시고 엇더케편티시나
 향면서 고기를 살짝숙이더니 치마단을 드러다가 눈물도아니나는눈을이리씻고
 저리씻고이눈도부리고저눈도부리며서 두눈이 발개지도록 부비더니 가장눈물
 이나 낮던체고 고개를 반씩드러 부인을치어다 보며 압흐로 밧삭드러 오더
 니

(점순)마님

현네는 오날밤일지라도 물에나빠져죽던지 다라나던지향지 하로라도 이대애
 잇고심흐지 아니합니다

(부인)요 쳐죽여 노흘년

고거슨다 무슨소리냐

니가네게 심하게구려서 살수가업단말이나

요년 네가어디로 다라나.....

오냐 네치조것 다라나보아라 하늘로 올라가지는 못홀터이니 어디로가면 못
 붓들깃나냐 붓들너만 보아라 티미애 쳐죽일터이다

(점순)누가 마님을시려서 죽고심흐다 향는말숨이오닛가 아낙애 드러왔다가
 마님께서저릿케 근심향시는거슬보면 현네는아무경황이업습니다 오날밤일
 지라도 춘천마마님이 죽고업스면 현네는 닝수만먹고사라도 살이찌깃습니다

마님께서 현네말슴더로만향시면 아모적정어 업스실대이지마는.....

(부인)이이 무슨말이나

어디좀 드러보자

침다 거괴서서 그리향지말고 방으로드러와서 말좀조제이 향여라

점순이가 팔장을씨고 횃드거리고 안방으로 드러오더니 안방아리싼옷속에 쫓구
 리고안져서 부인의얼굴을 말스름 치어다본다

(부인)이이점순아 나는고만죽고심흔 마음만나니 엇지향면 조란말이나

(점순)마님께서 그런말슴을향시면현네는 아무경황업습니다 에그머니 그원
 슈의 춘천마마님 하나덕문에 원집안이 이렇게 난가될줄 누가알앗쓰가

(부인)아닛곱다 그썩진년을 마마님이니 별상님이니 닝압해서는 그런소리 마
 러라

네나 그년이나 상년은 맛찬가지지 이후에는 마마님이라고 말고 춘천집이라
 고 향던지 강동지살년이라고 향던지 그것케말향여라

(점순)령감마님을뵈온들 현네도리에 그것케 말슴을수야 잇습닛가.....

마님.....

마님소원을 푸러드릴터이니 마님께서 춘천마마의일을 현네의게 맞기시깃습

닛가

(부인) 오나 죠홀도리가 잇스면맛기다 썩이깃나나 나는죽박을 차더리도 시앗만업시 사랏스면쫓깃다

(점순) 그런들 지물업시야 엇지삼닛가

(부인) 지물이 다 무엇이란말이나 나는지물도성가시다

령감게서 돈만업서보아라 엇던비러먹을년이 령감게오깃나나

령감이 인물이남보다 잘나셨나나 말을남보다 잘하시나나

엇던년이 무어슬보고 령감게와.....

돈하나 바라고오지.....

션디감 사르섯슬셔는 지물도 참 만터니라마는 션디감도라가신후에 령감게서 제집의게 죄 디밀고 무엇이잇는줄야나나 닉포셔 올너오는츄수섬하고 황히도연안셔 오는추수외에 무엇이잇다더나

내가 잠자코만잇스면 몇철못되야셔 춘천집의게로 죄디밀고 무엇이남을줄야나나

그원수의 침모년도 령감의 돈냄새를맛고 달너붓흔거시다 령감은 고남어지 지물을 쫓아붙여야 다시는 제집의게 눈을뜨지 아니하시터이다

세상사름이 다 지물이 좃타하더리도 나는조흔줄 모르깃다

第十三章

더라

(점순) 마님께셔는 이떡짜지 고성을모르고 지니신고로 그럴말씀을하시지 사름이 지물업시 엇더케삼닛가
(부인) 그런말 마라 세상에고칭치고 시앗두고 근심하는 고성맞흔 고성이 또 어디잇깃나나 나는시앗만업스면 돈한푼업드리도 아모근심업깃다
닉손으로 바누질품을파라 먹드리도 영감과나와 단두식구야 엇더케못살깃나나 닉가가자식이잇나나 어디마음부칠데가잇나나 령감한분뿐이지.....
(점순) 그럴터이면 마님께셔 돈을만이쓰시면 춘천마마님과 침모를 죽일도리가 잇습니다

하면서 부인의귀에 소곤소곤하논티로 부인이고개를 찌덕거리며 입이떡버러졌더라
지혜마흔 제갈공명을잇고 물을어든고기갓치 조아하든 한소렬도 잇섯스나 그거슨 사괴상에 지나잔네일이라

지금우리나라 장안 돌구멍안에 전동김승지의부인은 썩만흔 점순의말을듯고조와셔 밋칠듯흔 모양이 고기가 물어든것보다 더하더라

점순이논 상전의게 긴흠스륙 더욱긴흠체하고 하던말을 두세번겹흐른다
(부인) 오나 오나 돈은얼마가드던지 너하라는티로만 흘터이니 부디낭피업시

잘만 하여라

에그고년 신흥호년이 지 키는 죠고마호년의 의사는 방흥이 갖고나
침다 너덧저구리입고 당겨오너라

나는 오날부터 령감을 뵈옵더리도 아모소리말고 가마니잇스마

점순이가 부인의 명을듯고 황금사만을 출입하던 진평의 수단갖흔 경영을 품고
남딤문밧그로 나가더라

히느져서 점々어스름밤이 되어가는데 도동춘천집 흥낭에든더부사리 계집이 티
문을 열너 나왔다가 엇더호절문계집이 문밧게와셔

아던집드러오드시 썩드러오는거슬보고 문을아니닫고섰스니 그계집이 살작도라
다보며

여보 이딕이 전동김승지령감의 별실되시는 춘천마마님딕이지오

호더니 안으로 드러가다가 어린아허우는 소리를듯고 잠작놀나는 모양으로 흥
낭사름을 다시도라다보며

여보 이딕에 어린아기소리가나니 아기는 뉘아기오

(더부사리) 이딕마마님이 이달초성에 아들아기낫소

그계집이 다시는 못는말습시 안으로 드러가니

(더부사리) 어딕셔 오섯소

(계집) 령감딕에서 심부름은 사름이오

호면서 안방으로 드러가는데 그세 침모가 춘천집을딕하야 김승지부인의 흥을
보던썩친딕 그말썩해 점순의말이나셔 고년이 여우갓하니 무엇갓하니 호며 정
신업시 말을하다가

점순이 목소리를듯고 침모가 잠짜 놀나면서

에그머니 죠년이 여기를엇지알고오나

네가공교롭게 여귀 왔다가 고년의 눈에씩호면 또무슨몹슬소리를 드를지.....

(춘천집) 그거시누구란말이오

(침모) 지금 말하던 점순이오

호던초에 점순이는 발셔마루우에올너와셔 방문을여니 침모는망단호괴씩이잇고
춘천집은 어린아허를안고 거듬더보지도 아니호고 가마니안젼더라

(점순) 저는 큰딕하인 점순이올시다

발셔부터 마마님께 와셔뵈옵즈호면셔도 밤바셔못와 뵈왔습니다

에그 침모마누라남도 여귀와셔게시군.....

(침모) 네가 여귀잇는줄을 몰낫던가

(점순) 알수가잇습닛가

聲 의 鬼

항면서 춘천집 압호로 밭삭다거안더니
에그 아기도 람스럽게 싱겨지.....
마마님달맛군.....

그러나 방이이렷게치워서 마마님도 치우시려니와 아기가오작침깃습닛가
아마 나무가귀흔 모냥인가보이다

부리시는하인도 업습닛가 제가나가셔 불이나좀셔고 드러오깃습니다
항면서 벌덕이러셔는디

침모는 닷천몸을억지로 이러안진터이라 드러눕고심흐나 점순이가기만 기다리
며 담배만 먹고안졌고 춘천집은젓썩지문 어린아히얼골만 내려다보고 입을물봉흔
드시 안졌더라

안마당에서 사람의소리가 나더니 더부사리게집과 즈근들이가 드러오면서 썩드
는디

이집은 안마루똥헤 부려노아라 저나무바리는 밧겻마당에부려노아라

항는소리를듯고 점순이가 마루로나가면서

(점순)우익 인제왔소

(즈근들)인제가 다 무어시야 조음썰니왔나 짐군다리고 오다가나무 사느라고
지체되고.....

聲 의 鬼

항면서 짐을그르는데

점순이가 다시방으로 돌쳐드러오더니

팔장을씨고 옷목에서썩 춘천집을 건너다보며

(점순)마々남 저거슬 어디드러노흐면 좃케습닛가

(춘천집)저거슨 무엇이란말인가

항면서 거듭더보지도 아니흔다

(점순)물목을 적은거슨업습니다마는 현네가말습으로 옛좁겻습니다

항더니 무엇무엇을 쥬어섬기는데 처음에는 점순이가 제말을호려면 제라고 항

더니 식로히말공디가 느려서 현네라고항니 춘천집은 불감흔 싱각이 드는중에

싹뻗게 큰집에서 보닛다는 물쭈이 갑슬칠지경이면 업전으로

여러빅냥어치가될지라

천하를 다니거슬삼고(獨裁專制)독저전제항던 만승천조도 무어슬쥬면 조아항는

그러흔제상에 동지섯달치운방속에서 발々썰고 두무름이 억기까지 올라가도록

썩고리고안졌던 춘천집이 먹을것 입을것 썰것 썰것을 합품이 나도록 바다가지

고

숫모기 녀편네 마음이라 흠쭈흔싱각이 드러잔다

(춘천집)그거슨 누가보닛섯단말인가

하면서 얼굴에 조아하는 빛을 띄었다라

(침모)즈네딕 마님이 보너시던가

(점순).....

(침모)그것참 이상한일일제그러

즈네딕 마님이 도라가시려고 환장하셨나베

(점순)글세말이지오

마음이 변하기로 우리딕마남갓치 변할사람이 누가잇깃소 침모마누라님 가신 후에도 장 후회를하시교

딕마々님이 춘천셔 올너오시던날도 그것게몹시 야단을치시더니 지금싸지후 회를하시니 엇지하면 그것게변하시는지

침모가 그소리를듣더니

(半信半疑)반신반의하시야 이상한마음이드러셔 아모말업시 점순의얼굴을 치어다 보고있다

(점순)그러나 마님께서 지금도 령감압해서는 후회하시는 괴석도아니보이시 니 그거슨원일인지.....

마님말씀에는 령감게셔 무슨일이던지 마님을 쇠기신다고 거괴화를느시는모 냥인딕 마々님이시골셔 올너오시기전에 령감게셔 마々님오신다고 마님께말

숨한마디만 하여두셨더면 마님께서 그것게디단이 하시실리가업셔오
부지불각에 교군이드러오는거슬보시고 그것게하셨시오 그마님이 성품이날씩
는 오작디단하시닛가 침모마누라님도 아르시니 말씀이지오
지금도 령감게셔 무슨일이던지 마님께먼저 의논만하시면 마님이 그것게박절
이 아니하시오

마님이 마음니키실씩는 활수하고 좀 죠흐신 마음이오닛가 침모마누라님은
격거보셨지오

하면서 요악을부리는데 춘천집과 침모의마음은 볼바람에 눈독드시 푸러지는데
점순이는 말셔눈치를 알고다시 침모를보며

(점순)침모마누라님은 언제부터 이리오셨슴닛가
로마누라님은 계동딕에 혼즈게심닛가

그말쭙해침모는 딕답을아니하고잇는데 점순이가 지계문을열고 짐푸러 드러놓
는 즈근들이틀너다보며

여보 순돌아바지 너일일죽이 종노가셔 나무한바리 크고조흔것으로사셔 계동
침모마누라님딕에 갓다드리시오

악가우리딕 마님께서 말씀하셨다
하시니 다시문을닫고 쏘고리고안지면셔 혼즈말로

에그참 그마누라님이야
아드님업고

지물업고

나흔만흐시고

아모도업스니말이지 압도못보시는러에.....

침모마누라님갓치 효성잇는싸님이 업섯든들.....

에그참.....

하면서 말뚝을 맞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씻는지 슈건으로 눈을 훔찰 훔찰 씻는모양
이라 춘천집은 의구히젖먹는 어린아히만 드러다보며안졌고 침모는 머리맛미다
지창살만 정신업시 보고안졌다가 점순의말에 오장이 저는듯하며 눈물이떠러진
다

사람이 제서름이과하면 조고마흔일이잇셔도 남을원망하는일도 잇지마는
제서름이 과할썩에 원망하던곳도 원망할마음이 푸러지는일도 잇는지라

침모가 김승지집을 원망하던마음이 푸러지고 제팔자와 저의어머니신세가 가련
흔싱각만나서 눈물을씻고 점순이를 건너다보며

(침모)세상에누가 우리어머니 신세갓흔 사람이또잇깃나

김승지덕에서 나무는 우의사셔 보너신단말인가

마음쓰시는 것만하여도 바드나나 진리업네

너일 나무사거든 그나무를 마々님께나 갓다가드리게

하면서 점순이를보고 신세타령이 나오는디

언제부터 점순이와 그렇게 정이드러던지 천동성이나 본드시평일에 지넌일과

평성먹엇던 마음싸지 낫々치말하는디 스르죽어가는듯 훌룩소리로 하는말이 굽

의굽의 처량흔일이 만흔지라 그말을 다 맞치지못하고 소리업시 눈물만떠러지

는디 업해사람이 참아볼수가업더라

춘천집은 제서름은 생각지아니하고 침모를불상이여겨셔 엇더케하면 저러흔사

름을 잘도아줄고 하는마음이 싱기면서 또흔눈물이 떠러진다

점순이는 눈물은 아나나나 갓치숨허하는 입니를느라고 고깃고깃 하게 도리

무친 서양손슈건을 손에쥐고 팔꿈치는 쫓구리고안진 무릅우에 을녀눗코 손슈

건든손이밤벌네갓치 살썩볼때기를 벗기고 얼골은 사름업는 벽을 향하여안젖

는디 방안이 다시적々하얏더라

침모의치마압해는 소상반죽에 가을비썩러지듯 눈물이 떠러지는디 그눈물을 화

답하는 춘천집의눈에서 눈물이마쥬썩러지다가 어디가 못썩러져서 잠든어린아

히눈우에 썩러지니 춘천집이 치마짜락으로 어린아히 눈을씻기는디 그아히가잠

을새여 젓썩지무러던 고개를 너두르며우니 점순이가 획 도라안지며 춘천집압

흐로 다가안더니

(점순) 아기를 이리줍시오

현네가 젖을 좀 먹여보겠습니다 현네 젖식은 암축으로 기르드려도 너일부러는 마누님 덕행상에 든 사람은 우리 덕행상으로 보시고 현네는 이 행상으로 오겠습니다

자근들이는 령감되지고 당기는터이니 을슈가 업스나

현네 혼자 와서 죠석진지나 지여드리고 아기젖이나 먹이고잇겠습니다

(춘천집).....

(점순) 그러흔 걱정은 맏시오

현네의 젖식은 마님께셔 즈미로 거두어 주신답니다

마님께셔 자근잔에 아무것도 업스신고로 어린아기를보면 귀의하신답니다

항면서 어린아기를 바다안고 젖을먹이는데 춘천집이 잠시동안에 점순이와 엇

지그리정답게 되얏던지 점순이가 그행상으로 아니올가 녀너를호고잇더라

第十四章

열길물속은아라도 한길사름의속은 모르느거시라 점순이가 입에는살을발랐스나가삼에는 칼을품은사름이라 나히어리고세상도적지못하여본 춘천집은 점순의게

엇더케 흘렸던지 점순의말이면 왓으로 며쥬를 만든다하여도 고지듯게되얏더라 그날밤에 점순이가 전동김승지집에로 도라가니 부인이혼조 안져셔 점순이오기 만기다리고잇더라

(점순) 마님 현네는도동갓다 왔습니다

(부인) 오! 어서이약이좀 하여라

더체그년의 인물씨가 엇더하더냐

(점순) 인물은 엇지그리 어엿썩시오

사름도미우 얹전히요

성품도더단이 슴호모냥입디다

(부인) 요비라먹을년 쥬져넘기도 분슈가잇지 네가 춘천집의 얼굴은 보앗스니 알아니와 잠간보고 성품이 엇더흔지 엇지그리저세아니

그만두어라 듯기실라 누가 너더러 그런소리하더라

너도말서 령감처럼 춘천집의게 흘렸나보고나

무엇먹을거시나 쥬며 살썩히더라

항면서 얼굴이 벌개지고 열이벗셔는모냥이라

점순이가 그부인압헤셔 자라날썩에 더강이논 조로어더맛나라고 맞치들갓치 구뎃고 마음은하로열두번씩 편잔과썩지람 듯기에졸업을히셔 여잔썩지람은 드러

도드르듯 심호지 아니호 점순이라 점순이가 눈을삼작삼작호고 안졌다가 부인의
골을좀도흐려고

(점순)마님 춘천마々님은 아들이기를 낳는디 엇지탐스러워요
부인이괴를 버럭너더니 소리지르면서

요년 네눈에는 그년의집에 잇는거슨 무어시던지 조케만보이더나
썰보기실라 너눈압헤 보이지말고 네방에로나가거라
나가라하면 얼는 나갈일이 지 우이거괴 안졌다나

점순이가 문을열고 나가더니 마루뒗헤가서 팔장을찌고 쪼고리고 안졌다거늘 부
인이 한손으로 축불을가리며 미다지유리로 너다보다가 미다지를 여러제치면서
요년보기실라 우의 똑마쥬보히는 고괴가셔 안졌다나

점순이가 흥남으로 나가는디 맛참김승지가 안중문으로 드러오거늘 점순이가
다시 돌쳐셔々 안뒤것호로 살작드러가더니 무슨말을 엇드르려고 안스방뒤문
에슈머섯더라

김승지는 안스방으로 드러가다가 그부인이 조치못호괴식으로 외면호고 안진거늘
보고 또무슨성가신 소리나홀가 녀녀호야 김승지가 쥬착업는말을 횡설슈설호다
(김승지)여보마누라 너가무슨의논을 좀 호일일이잇소
이런일은 나혼조쳐결 호슈는업는일이야

아마 마누라가 이제성손은 못호지.....
불가불 양조를호야 홀터인디 맛다호곳이 업거든

호면서 혼조말로 엉병호고안졌다디 부인은 아무디답이 업더라
(김승지)여보마누라 경필이 들쳐아들을 다려다가 길으면엇더호깃소
그아허가 마누라의 마음에는 아니들지.....

부인이고개를 휘두르면서
언제너눈에 드는거슬 고르느라고 이씨사지 양조를아니호엇소 령감이 썬욕심
이잇셔셔 양조를아니호엇지.....

(김승지)너가 썬욕심은 무슨썬욕심.....
(부인)인제는 령감의 욕심침은 되얏스니 양조는호야 무엇호시려오 그렇게
탐스럼게 잘싱긴 춘천집의 숙에서나혼 조식을두고 양조가다 무어시야 조식
업는 나갖혼년만 팔조가사나왔지

열살이되도록 코물을 쥬줄호니고 당기는 경필의들지아들은 다려다가 무엇호
게 나눈조식업시 이더로 잇슬터이야
호면서 눈물이 비쥬비쥬나니

김승지는 또부인을 불상호게 여기는마음이 잇더라
춘천집을보면 춘천집이 불상호고 부인을보면 부인이 불상호다 하로잇호를 한달

두달이나 지내고 마음이 변하면 여사이나 김승지는 그 날 낮후까지 도동첩의 집에 갔을때에 춘천집의 고성호는 모양과 춘천집의 셔른사정호는 소리를 드를씨는 오장이 슬슬 녹는드시 춘천집 불상호마음이 들면서 작정호일이 잊섯더라
무슨작정인고

춘천집의 고성호는 모양이 엇지그리 불상호던지 이후에는 마누라의 야단은 고스르고 옥황상제의 벼락이 너리더리도 춘천집하나는 고성도아니하고 지괴를 폐이고 지너도록 하여주조하는 마음이 잊섯는디 하로가 지나지못호 그날밤에 그 부인이 조식업는 신세를 말호면서 눈물이나는 거슬보고 또엇지그리 불상호던지 첩인지 무엇인지 다 귀치아니호 생각이든다 그러나 두가지일이 마음에 걸니는거시 엇더라

악가박참봉이 왓을때에 제간계를 열고 벽석츄슈는문서를 너여주면서 호는말이 이거슬 가지고 도동으로가서 춘천집을주고 아모조록 춘천집이 마음부치도록 안심을시키고 오라호앗는디 앗차 좀 천々히 호더면 조호반호였다 호는마음도 잇고 또 춘천집이 조식까지 나호러이라 버리기도 난쳐호마음이 드러잔다

(김승지)여보마누라 그런말은 누게드렸소
다른날갓호면 부인의 성품이 소리를 버력々々 지르며 말을호엇슬러인디 그날은 무슨사닭으로 그리종용호던지 비죽々々 울면서 목소리도 크게아니호고 김

승지를 도라다보며

여보사름을 그렛케도 쇠기시오 참 야속호호

(김승지)호말업소 너가성각이 잘못드러서 그렛케되얏소

(부인)령감게서는 셋갓호 절문계집을두고 옥동조갓호 아들을낫코 혼자호강호고 조미를보실 러이로구려

나는나히사십이나되야 쏘구러진거슬 령감이 도라다보시거나 호러이오
너가 자식이나 잇스면 자식의게나 마음을붓쳐 살러이나 자식업는 이년의 팔자는 엇지될것인고 죽어후성에는 나도남조나 되얏스면.....

마르시오 마르시오 그리틀 마르시오

령감은 열세살 나는열네살에 결말부々 되얏스니 머리가 파썩리 되도록 마음 이번치안코 사다가 죽은후에 송장은 한구덩이로 드러가고 호은합독사당에 의지하야 아들 손조 종손 고손의 디까지 제사를 바다먹어도 갓치안져 바다 먹을줄 아랏더니 이몸이 죽기전에 령감은 춘천집의게 셋갓소구려
령감은 도라가신후에 춘천집이 나혼자식의게 싸뜻호 제사를 바다잡수시깃소 구려

에그 셔른지고 이년의신제는 엇지될것인고
죽어서는 무자귀 될것이오

사라서는 쇼박덕이 되잇고나

무자귀되는거슨 누구를한가하릿가마는 쇼박덕이되는거슨 령감이 무정하야

그러하지 령감이 춘천군수 도임길 떠나시던날 뇌가세슈하고 거울을보고 안

졌는디 령감이 담배스덕를 겨구로잡고 연기가 모락々々나는담배 물썩리를

네 암니마로 썩드리밀면서 하시는말이

이것보게 말셔센털이 낮네 하시기로 뇌말이 령감이 걱정이 되실것 무엇잇

소

절문첩이나 두시구려

하노 뇌말은 진정으로 나온말은 아니오마는 그썩 령감이 무엇이라고 말삼하

섯소 령감의 말삼이 늣으면 마누라혼자늣소

절물썩는 갖치점고

늣을썩는 갖치늣고

고싱을 하여도 갖치하고

호강을 하여도 갖치하지

뇌가혈마 마누라가 늣었다고 절문첩집을두고 마누라를 고싱이야 시기깃소

하시던말이 어제갓고 지금갓소

지금 령감의몸은 여괴안젓스나 령감의마음은 도동춘천집에가셔 계시깃소구

려

속비흔 취부처갓치 등신만여괴계시면 쓸티잇소

가고십고 가고십흔 도동을 못가지고 보고십고 보고십흔 (춘천집을 못보시면

투괴하노 안히만 미운싱각이 들러이오구려 한번밧고 두번미우면 세번네번썩

는 원슈갓치 될러이오구려

원슈가되기전에 나는나혼자 살다가 죽을러이니 령감게셔는 춘천집이나 다리

고 잘사르시오 여보복바드리다.....

에그 뇌팔즈 이리될줄 뉘이나 썩엇슬가

하면서 안진처로 푹곡구러지더니 잉々우다가 흙々늣기다가 나중에는 아모소리

가엿더라

김승지가 그부인이 셔른사정 말숄썩에 무안도하코 불상도하코 후회도나던츠에

그부인이 엽터려올다가 아모소리업는 거슬보더니 눈이휘둥구러지며 겁이필져

나셔 불려도보고 손으로 혼드려도보고 두손으로 억개를안고 이리케도 보는디

심술에 잔득질닌 부인은 정신이멀정하면서 눈을감고 이를씩악물고 사지를썩썩

더 놀이지아나하코 잇스니 김승지가 꺾々을면서

(김승지)마누라 마누라

여보정신좀 취리오

글세 우의 이리호오
네가 마누라의게 적악을호야 마누라가 글로인병치스 홀지경이면 네가 혼즈사
라 잇셔々 무슨복을밧깃소
여보 눈 좀셔보오

한참그리홀지음에 점순이가 튀어드러오더니 에그이거시 원일인가 호면서 원
집안 사름을다 불너셔 계집하인들은 방으로 드러오코 사나히하인들은 안마당
에 드러와섯는디 그날밤은 그모양으로 원집안에서 잠한잠 못즈고 안져셔는사
름셔々셔는사름 갈광질광 당기다가셔는사름 그렇게 소요호중예 부인은여려
사름의게 불아호 마음이 조곰도업시 흥중을 부리고 그모양으로 밤을지넛더
라

그잇흔날식전에 김승지는 사랑에나가셔 잠이드렀는디 동즈앗치는 밥을짓고 반
비앗치는 반찬을밧들고 그외의사름들도 다각금 저홀일호느라고 나갓는디
안방에 안젧는사름은 유모와 점순이뿐이라

그집티문안에 그중지각잇는 사름이 누구냐홀지경이면 유모이라 본티 김승지의
부인이 습십이넘은후에 아들하나를나셔 유모를두엇더니 그아히가 세살에죽고
그후에는 부인이 조너잔나체를못호지라 유모는 그아히죽던날부터 제집으로가
려하나 김승지의네외가 붓드는고로 그셔사지 잇섯더니 그날 김승지부인의 호는

경상을보고 그집안이 엇지될지 디감점작이 잇섯더라
유모가 점순이를보며

(유모)여보네 네가이딧에 신세도만히짓고 몇히를잇셔々 바라는거슨 마님께
셔아기나 하나 더 나호실가 호엿더니

마님께셔 년세도 만호시고 자녀잔에 나호실지 못나호실지 모르는데 네가
이딧에잇셔 쓸티잇나

나는 오날알지라도 마님께 하직호고 가깃네

점순이가 그말을드르면서 눈을쌔작어리고 안젧다가 생각호중 유모가 그집에잇
스면 저호는일을 눈치치일 녀네가 잇는지라

(점순)잘싱각 호섯소 이딧에잇셔 무엇호시깃소
령감게셔는 춘천 마々님께만 마음이잇스시고

마님께셔는 저렷게 심병이 되야지네시니 이집안이 엇지될는지 알슈가잇소
호는소리에 부인이눈을 번셔쓰며

(부인)이집이 아니망호출어나 네눈으로 이기동썩리도 아니남는거슬 보아야
네속이 시연호깃네

호더니 다시눈을감고 누엇더라 그날그집안에는 다 밤식운스름뿐이라 너나업시
조름을 참지못호야 동즈와 찬비외에는 이구석저구석에가셔 잠드러즈는 사름들

썩인디 그중에 지성으로 부인의 압해 안젓는거슨 점순이라 부인이 다시 눈을 번쩍 뜨더니

이이점순아 이방에 아모도업디

(점순).....

(부인) 그월슈의년을 엇더케하면 좃단말이나

암만홍야도 분홍야 못살깃구나

(점순) 마님께셔 우의 그리홍심닛가

다된일에 무슨걱정이 되야셔 그리홍심닛가

마님께셔 이렷케하시면 어제하던일은 헛일이됩니다

(부인) 글세 어제일이 엇지되었나

어제는 춘천집이 조식났다하는 소리를듯고 너가엇지 열이나든지 너더러무려 볼말도 못무러보았다.....

(점순) 마님께셔 원네의게 그런일을 아니밋기시면 모르거니와 원네의게 맏기 신후에야 범연이홍깃슴닛가

홍면서 고개를꼭 수구리고연지를 문듯흔 입살을 부인의귀에덕이고 소곤소곤 하는소리에 부인이 벌떡이러나며

(부인) 오냐 정녕그렷케만 될터이면 너가멧칠이던지 참고잡자코잇스마

(점순)에그 멧칠이 무엇이온잇가 그러홍일을 그러케급히 셔두르면 못슴니다 멧칠동안이라도 일만 홍려들면 못올거시야 무엇이잇슴닛가마는 그러케급히 하면 남이그런눈치를 칠거시올시다

만일그리홍일이 단스가 나고보면 마님께셔야 엇더하시깃슴닛가마는 원네갓 처만々홍년만 몹슬죽음을 흘리어올시다

(부인)이이 그러면 그일이 언제쯤 된단말이나

(점순)그렷케 날작정 달작정을 홍실거시 아니올시다

하로잇홍동안이라도 괴회만조흐면 흘거시오 일년잇히동안에도 괴회가좃치못 하면 못하는거시올시다

(부인)오냐 걱정마라 너 아모리참기어려워도 눈썹씩 멧달이던지 멧히던지 참을터이니 네가 감씩갓치 일만잘홍여라

홍면서 부인은 점순이를 당부홍고 점순이는 부인을 당부홍다 이방져방이구셔 저구셔에는 사름사름이 잠드러코고는소리오 마루에셔는 찬비가양념다지는도

마소리오 부인은 점순이를다리고 수군거리는 소리썩이라 허가 낮이나되더니 그소리저소리가 다 굿치고

부인은 이러나고

점순이는 흥남으로나가더라

인간에 식벽되는 소식을 전하려고(扶桑三百尺) 부상슴벽척에 썩쇠요우느거든 듯
기조흔 수들우느소리라

그소리 한마디에 인간에잇는 닭이 낮낮치 싸라운다
아세아 큰륙지에 썩니민 반도국이 동편으로 머리를들고 부상을바라고 세상밖
은괴운을 기다리고잇는 빅두산이이리굴들저리굴들 삼천리를 내려가다가 중심
에 머리를 다사드려 삼각산 문필봉이 성겼느디 그밋혜는

(皇宮國都)황궁국도에 만호장안이 되얏스니(鍾鳴鼎食)종명정식호는 부귀가가
질비하게 잇는곳이라 홍망성쇠가 속호기는(一國)일국에 그산밋치 제일이라
전동사는 김승지는 조상을 잘써머히고 운수죽게 잘지늬던사람이라 김승지집안
들아리 구양문우에 닭의해가 미엇느디 만호장안에서 썩쇠요소리가나면 김승지
집에서는 암닭이해를 툭々치며 썩々소리가나니 원집안에서 암닭운다고 수군거
린다

세상에 구괴잘호기로는 남의게 돌지가지안든 집이라 사흘밤을 암닭우느 소리
를듯고 이집이망호느니 흥호느니 호느공논이 부산호다

부인이 지근돌이를 불녀서 우는암닭을 잡아업서라 호얏느디 본리김승지가 자
미본다고 북은닭한쌍을 두엇느니 몇칠전에 시골마름의집에서 씨암닭으로 양바

름호고 맵시조흔 암닭한마리를 가져왔느디 저녀마다 오를씩면 북은암닭이 핏
닭을엇지 몹시쪼던지 북은닭한쌍은 나란히잇고 핏닭은 해 한구석에가서 싸로
써러져 쪼더라

하로밤에는 부인의영을듯고 남종녀비가 초롱불을들고 우는닭을 차지려고 닭의
해밋헤가서 기다리고잇느디 밤중이다못되야 북은암닭이 썩썩운다

부인이 미다지를열며
이이 어는닭이 우나나

베집종들이 일제히호는말이
고못된 북은닭이웁니다

여보 손돌아바지 어서 고리를 잡아 업서버리시오
(부인)이이 그거시 무슨소리나 아모리 날짐승일지라도

본리 한쌍으로 잇던 북은암닭을 우이업신단말이나
고못된핏알라 한마리가 드려오더니 북은암닭이 서러서 우나보다

네고 핏암닭을 지금으로 잡아너려서 목아지를 비드러죽여버려라
지근돌이가 핏닭을 잡아죽이느디 짐승에소릴지라도 밤중에 툭잡는소리갓치 쓸

々호 소리는업다
그소리한마디에 원집안사람이 소름이 썩々찌치더니 그소름이 녕협이잇던지 날